



남대문로5가 쪽방 퇴거

-2015년,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동의 쪽방 주민 약 100여명이 퇴거 당하는 일이 발생함.

-퇴거당한 주민들이 거주하던 쪽방 지역은 남대문로 5 가 도시 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된 개발사업구역임.

-주민들 대다수는 벽보를 통해, 혹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로 거처를 상실하였으며,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누구에게도 들지 못하였음.

쪽방은 가난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최후의 안식처이며, 거리 홈리스가 지역사회로 재진입하는 발판이 되고 있음.

구별	밀 집 지 역	쪽방거주자(명)				기초	65세	
		계	일시	상시	주 민 등록자 (명)	생활 수급자 (명)	이상 홀몸 노인 (명)	장애인 (명)
합 계	13개 소지역	3,681	277	3,404	3,243	1,745	1,059	654
종로	돈 의 동	635	115	520	721	258	156	108
동대문	창신,전농1동	505	22	483	401	236	142	99
중구	남대문, 중림	839	71	768	836	381	236	145
용산	동자,갈월,후암	1099	-	1099	826	602	358	176
	영등포,문래 시(2015), 저렴한 쪽	603 방임대자	69 원 사업 계획	534	459	268	167	126



-남대문로 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는 지하 8층, 지상28층, 높이 124,69m 규모의 업무시설, 판매시설, 국제회의시설 등을 갖춘 빌딩이 들어설 예정임.

-서울시는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"노후화로 인해 도시경쟁력을 상실한 기존 건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, 남대문로 5가 주변 구도심의 낙후된 도시기능을 확보하고 가로 및 상권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"한다고 밝힘. -퇴거요청을 한 이들은 퇴거사유에 대해 개발로 인한 퇴거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으며, 안전진단을 사유로 든 경우가 가장 많았음. 그로인해 퇴거 주민 대부분은 왜 퇴거를 하는지, 지역 개발 상황과 보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음.

-퇴거이전, 소득수준은 평균 65만원이며 이중 주거비로 약 38%(평균 25만원)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었던 주민들은 퇴거 이후, 평균적으로 주거비가 약 3만원씩 올라 전체 소득의 43%를 차지하게 되었음.





서울로 7017

- -1970 년 , 급 격 한 인 구 증 가 와 교통난 해결을 위해, 서울역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서울역 고가도로가 설계됨.
- -1990년대 말부터, 서울역 고가도로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됨.
- -2017년, 차량길에서 사람길로 서울로 7017이 조성됨.

서울로 7017은 단절된 서울역 일대를 통합 · 재생하여 지역 활성화와 도심 활력 확산에 기여하는 사람 중심 도시재생 사업



「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

- ▶제13조(행위의 제한) 1항 3호: 눕는 행위, 노숙 행위 및 구걸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
- 위 조항 삭제
- ▶제13조(행위의 제한) 1항 6호: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
- 위 조항 삭제 또는 '위험물 사용, 심한 소음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'로 수정





THANKS!

homelessact@gmail.com